

◆머느리권씨 열전 16-2

국내 최초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의 모, 권상연의姑母 권씨 (추밀공파 29세, 권기정의 딸)

권씨부인의 권씨의 가계와 제사 거부 배경

여권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제사거부에는 근거가 있다. 종교도 물론 작용하였지만 조선후기에 와서 노론등의 독점적 패거리 문화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서열등에 대해 불평등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었다.

조선초중기 까지도 여권은 거의 동등하였다.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며, 딸이 재가 하면 사위들 모두 기재하고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하고 남자는 주로 처갓집 동네로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외손봉사가 일반화 된 시기이기도 하다. 여자가 임양권,가정관리권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최근 검교공파 권소 계자 문제도 당시가 명중 때이니 양자로 가지 않고 외손 봉사등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권상연의 가문 역시 실학과의 상호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권상연이 유교식 조상제사를 거부하였을 때 조정의 관료로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친척들이 그를 격렬하게 비난하였기 때문이다. 권상연의 고모 안동 권씨 부인이 성정한 가문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동 권씨 가문의 예본(禮論)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안동 권씨와 해남윤씨의 통혼관계가 빈번하게 되었던 것도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안동권씨 부인의 4대조가 되는 권시(權讜,1604~1672)의 예론은 예의 외형적 형식보다는 예의 내재적 본질과 그 토대인 인정(人情)을 중시하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송시열과 윤선도 등의 논쟁에 대해서 그는 전례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공론(空論)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비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권시(權讜,1604-1672)의 입장은 그의 아버지인 권득기(權得己,1570~1622)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예(禮)의 시의성(時宜性)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예제(禮祭)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예의 실행에 있어서 가

난한 집안과 부유한 집안의 경제력을 중시하고, 가난한 집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독특한 예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권씨의 부친 권득기가 예의 사회적 실현을 사민(士民)의 경제적 실상과 결부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실(務實)적인 예(禮)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윤지충공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뭇 말씀드리거니와 천주교를 신봉함으로써 양반 칭호를 박탈당해야 한다 해도,저는 천주께 죄를 짓기는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규정대로 지내지 못하는 양반들도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 낮은 생각으로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제 집에서 천주교를 충실히 신봉하는 것은 결코 국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윤지충은 당시 사회에서 행해지던 예가 신분과, 그리고 경제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권득기가 사민의 경제력과 연결시켜 예를 이해한 부분과 서로 통한다고 하겠다. 이에 그는 이를 바탕으로 천주교의 유교식 조상제사 거부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진산사건의 사회사상적 배경과 관련되는 주제들은 앞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동 권씨 부인이 유교식 조상제사를 거부한 이유 역시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통해서 살필 수 있

니 앞서 언급된 설명들과 비슷하다.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리를 따라 조상제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을 미신행위나 우상숭배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신주를 만들거나 계속 모시며 제사를 드리는 일이 천주교에서 미신이라고 규정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식 조상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미신이라고 규정한 행위들을 오히려 참된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만일 미신을 따른다면 참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옳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지언정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역시 안동 권씨 부인 역시 천주교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유교식 조상제사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천주교 신자인 안동 권씨 부인이 천주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유교식 조상제사를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나 어쩌면 피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안동 권씨 부인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의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신앙과 사회의 상호관계이다. 때문에 그들이 유교를 사상적인 기반으로 하는 조선사회를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천주교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왼쪽부터 윤지충, 권상연, 윤지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2014년 제작한 초상화다. 주교회의 제공

대중회 회장단(부회장) 회의 개최

대중회 회장단(부회장) 회의가 6월 27일 11시 권기영(양천구), 권순협(안동시), 권승환(안동시), 권영진(전천), 권영복(용성구), 권영석(영등포구), 권영진(전 대구광역시), 권영훈(강남구), 권오수(고양시), 권오윤(종로구), 권용주(고양시), 권정일(대구), 권태균(서초구), 권희철(안양시)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회의 순서는 개회선언, 시조 태사공파 망배, 업무현황 보고, 회장 인사말,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신임 회장의 고유제 및 방문 활동 등 대중회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특히 능동에 나무심기 현수운동을 위해 권용일 부회장이 30만원의 성금을 냈으며, 권영창 회장이 총 3천만원에 달하는 춘양목 15년생 50그루를 약속했으며, 성남에서 조경업을 하는 권태근씨가 현지에 맞는 조경수를 현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하다. 지금까지 부회장 모임 없었다. 모든 운영이 회장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최종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겠지만 회장단 회의를 신설해서 부회장과 함께 중론 모아서 상임위원회에 올리겠다. 지역마다 간담회를 개최하여 좋은 의견 많이 들도록 하겠다. 능동성지 조성 사업 등 안동권씨 1100년 맞이 사업을 위해 특별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장이 있고 실질적인 일은 부위원장이 하게 될 것이다. 한 건 한 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도 기구표는 있었는데 위원들이 없었다. 중무인들이 기구표에 다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대중회 전체 기구가 움직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주로 국회의원이다. 안동권씨가 10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홍보 회원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밑에 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석부회장이 서울과 안동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서는 안동권씨 1100년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애족상상 고취부터 홍보 확대 보급, 아카데미 보화강화, 능동성지조성 추진위

원회, 유물기록관 건립,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및 사당 건립, 행주대첩 국가행사도 격상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할 계획이다. 순흥안씨 추원단에 가보니 천만 원, 2천만 원 돈을 내면 헌신비에 전부 이름을 새겨 두었다. 우리도 순흥안씨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권오상 사무총장이 수입과 지출 예산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권영창 회장은 오늘 회장단에서 정관 개정과 안동권씨 1100년 사업계획서 및 수치예산안이 만장일치로 모두 통과되었다고 선포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먼저, 홍보 확대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방법을 잘 선택해서 협찬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능동장학회를 흡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권영창 회장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권영훈 능동장학회 감사는 능동장학회 기금은 5억 200만원이고 삼성생명에 적금을 들어 놓고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운영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다음은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회에서 한괄 과보와 족보를 만들어 수익사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 땅 재개발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은 지금 쉬고 있어서 대중회 행사에 참석했다. 반갑다. 족친들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8년 동안 국회의원과 시장을 했다. 족친들이 큰 힘이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대중회가 크게 발전하고 대중회 그들 밑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전 대구광역시장은 현직일 때는 사드릴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부담이 없어 좋으면서 회장단을 위해 점심을 베풀어 주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갑 지역사무소 개소식 성황리 개최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의 용인갑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6월 1일 15시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도종환(충북 청주흥덕구), 이만희(용인정) 등 현직 국회의원 43명을 비롯하여 백근기 전 용인특례시장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용인지역 전현직 시·도의원과 지역 주요 인사, 지역 주민, 직능단체 주요인사, 권행완 안동권씨 대중회 편집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인숙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강의를 한 특별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처인구는 민주당에게 너무나 어려운 곳이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뿌리가 되고 싶다. 처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제 온 열정과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17회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 성대히 개최

정조공파(正朝公派: 회장 권순복) 주최 '제17회 경로화합잔치'가 안동시 송현동 축협하나로 마트 2층 '묵향'에서 고문 및 원로를 비롯하여 해제, 영안, 석담 등 3개 문중 종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순복 회장

이날 역대 정조공파중 회장을 역임한 권기만, 권기룡, 권오락, 권인택, 권영택 등 5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내외분,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권정창 대중회 제례위원장, 권주연 부호장공파 회장, 권희철 동정공파 회장, 권용주 전 부정공파 회장, 권오익 대중회 안동사무국장, 김대일, 권광택 경북도의원, 여주회 안동시의원, 권기봉 남안동농협조합장, 권영진 안동권씨중보 보도부장 등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와 함께 경로잔치를 축하하는 뜻에서 권영창 대중회 회장,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정조공파 3개 문중 등이 대형 화환을 보내오기도 했다.



권오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경로잔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상음례, 내빈 소개,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순복 파중회장은 단상위에서 큰절을 한 후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경로잔치는 족친간의 새로운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소중한 행사이며 17년 전부터 작년까지 대학생 628명에게 장학금 2억7백만 원을 지급하고 올부터 처음 신설한 출산 축하금도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자랑한 후 "오늘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철환 총친회장은 축사에서 "현 시장이 시내 골목길 포장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에 영향을 받은 나도 모든 일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원래 개혁을 하자면 시끄러운데 앞으로 안동총친회를 관심 있게 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안동권분이 많이 도와주었다"며 "안동을 국가 환경 보존지역으로 만들어 새롭게 성장거점도시로 발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이성화씨는 축사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내조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권광택 도의원은 "이 지역 국회의원, 시장과 함께 잘사는 안동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며 권주

대전총친회 제53차 정기총회 개최

대전총친회(회장 권용기) 제53차 정기총회가 6월 11일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권용기 회장을 비롯한 권선상 수석부회장과 권명호 사무국장, 권정순 총무와 대전 청장년회 권지원 회장이 참석하였다. 대전 참의공 종중에서는 권동원 이사장과 권대순 사무이사과 권용수 총무이사, 대전 탄옹공종중에서는 권인순 이사장과 권충원 자문위원회 의장과 권선목 사무이사과 권호석 총무이사, 대사간공 종중에는 권선유 이사장, 천성공 종중 권용제 이사장, 봉덕랑공 종중 권중주 이사장, 사평공 종중 권호일 이사장, 유희당공 종중 권석원 이사장, 진잠봉덕랑공 종중 권이원 이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참석자 모두는 뜻깊은 총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여 향우정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과거 년도 결산(안)과 차기 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개선했다.

임원개선을 위해 대전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동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권선부 종친은 권용기 회장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종친회를 이끌어 주었다고 하면서 유일할 것을 제안하자 만장일치로 권용기 회장을 유임하기로 결의했다. 권오석 감사는 유임하고 신임 감사에는 권선유 감사를 선출하였다.

권용기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종친 간의 단합과 대전총친회의 발전을 위해 안동권씨 대전총친회장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안동권문의 자존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하였다.

회원들은 총회를 마치고 부여 백마강으로 이동하여 유람선을 타고 부여 고관사를 거쳐 삼천궁녀강물로 투신한 낙화암과 부소산성을 관광하고 대전



으로 돌아오는 길에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위치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조선후기 유학자 명재 윤증 선생의 종학당을 관광하였다. 명재 윤증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문이며 시조 태사공의 신도비문을 찬하신 대전 탄옹공 권씨의 사위이기도 하며 우암 송시열의 문학생이다. 그는 과거도 보지 않았지만 당대 문인들의 천거로 우의정까지 임명되었었다. 그러나 관직에는 출사하지 않았다. 영,정조대에 사도세자의 문제 등으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할 때 소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인물이다.

권동원 대전 참의공이사장

연 회장은 "정조공파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부럽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는 기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순택 주순은 격려사에서 "오늘 내빈들이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어 감사하고 일가(一家)들이 모여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한다"고 부탁했다.

축사가 끝나자 주최 측은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최고령자(94세)에게 위로금 10만 원을, 거리가 가장 먼 서울에서 오신 족친에게 선품기 1대를 선물했다. 경품 추첨에서 참석자 전원 이 쌀, 쌀국수, 라면, 된장, 멸치, 휴지, 선품기, 찜통 등 각종 선물을 한 가지씩 따 갈 수 있도록 추첨을 하였다. 추첨에서 40인치 TV 1대를 권창혁씨(66. 안동시 길안면)가 타서 영예의 1등을 하기도 했다. 이날 경로잔치에서 종원 25명이 찬조금 335만 원을, 물품찬조도 20여명이 250만원어치를 선물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과 국수면 7봉(통당 900g)을 선물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